"농축산물 유통구조 이번 정부서 꼭 개선"

박근혜 대통령,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 나서

다음주 취임 후 첫 행정부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며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과 클럽 주차장에 설치된 직거래장터를 찾아 농축산물 유통 상황을 살피고 서민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다음날인 12일 서초동의 방송·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벤처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았다.

그동안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은 이날 직거래장터에서 산지의 농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농산물 직거래 효과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감자와 딸기, 나물, 돼지고기 등을 구입했다.

박 대통령은 유통전문가와 간담회도 열어 농협을 중심으로 한 유통단계 축소, 직거래 등 신 유통경로 확대,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등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살펴보면 농축산물 현지에서는 심할 경우에 밭을 갈아엎을 정도로 낮은 판매가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 때문에 밥상 차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산 유통구조가 복잡해 (불필요한 부분이) 채소류는 70%, 과일류는 50%에 달하고 결과적으로 작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불만을 느껴 이런 유통구조를 꼭 개선해야된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부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화해 유통경로 간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돼지고기 유통단계를 최대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인 프랜차이즈업체 방문 경험을 언급, "농협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인 농축산물 유통에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농축산물 가격이 오른 것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억울하게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며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매뉴얼이 있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수급조절이 되면 소비자도 이해하고 생산자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8개 정부부처 내 4대 사회악 관련 업무 책임자들이 모여 연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대 사회악' 척결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이런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국민이 행복하겠느냐"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웃고 즐겨도 그런 폭력에 시달리는 국민이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행복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다음주 취임 후 첫 행정부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업무보고는 18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부처가 먼저 보고를 할지 순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울대·고시출신 초강세…영남 우대·호남은 또 '찬밥'

첫 차관 인사 특징

전체 20명 중 18명이 고시·여성 2명

전남 1·전북 2명으로 겨우 체면치레

박근혜 정부의 첫 차관 인사 특징은 내부 인사 대거 발탁과 서울대 및 고시 출신의 초강세로 요약된다. 또 여전히 영남 출신이 우대되고 호남인사는 홀대를 받았다.

13일 발표된 13개 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관 인사 2명 등 20명 중 외부 인사는 나승일 교육부차관과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명에 불과했다.

나 차관은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로,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명의 차관 중 정치권과의 인연이 있는 유일한 인사였다. 박 차관은 국가대표 사격선수와 광운대 사격부 감독을 거쳐 현재 태릉선수촌장을 맡고 있다. 태릉선수촌은 대한체육회 산하 본부이고, 대한체육회는 문화부 소관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내부 인사로 볼 수 없다는 분위기다.

현재 경기도 자문대사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인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인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의 경우, 해당 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던 중 '전직'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여서 사실상 내부 승진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명, 경기가 1명이다. 대구·경북이 3명, 부산·경남이 3명으로 영남 출신이 6명이나 됐다. 전남은 1명, 전북은 2명이었다. 충청이 3명, 강원과 제주는 각 1명씩이다.

출신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전체 20명 중 절반인 10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직위에 중용돼 주목받는 성균관대 출신도 2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양대 출신도 2명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의 '신흥 유학 학맥'으로 떠오른 미국 위스콘신대 출신도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차관,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등 3명이었다.

무엇보다 고시 출신들이 차관직에 대거 포진한 것이 눈길을 끈다. 전체 20명 중 무려 18명이 각종 고시 출신이다. 행정고시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무고시와 기술고시 출신이 각각 2명을 차지했다. 사법시험 출신은 1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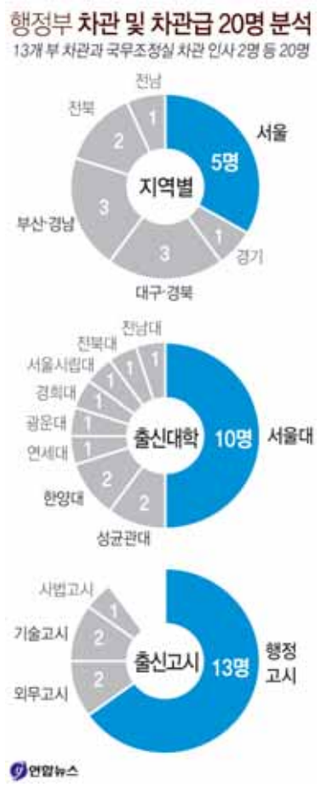
차관 20명의 평균 나이는 55.5세였다. 전 정권 첫 차관 때 인사 평균 나이 54.0세보다 많은 것이다.

여성 차관도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과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등 2명이 탄생했다. 이 차관은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출범한 이래 첫 여성 차관이다. 이명박 정부 첫 차관 명단에 여성은 1명뿐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차관급 내정자

직책	이름(나이·출생지)	현직	학력
교육부	나승일(51·충남)	서울대 교수	부여산업과학고·서울대
외교부 제1	김규현(60·서울)	외교통상부 차관보	경기고·서울대·외시 14회
외교부 제2	조태열(58·경북)	경기도 자문대사	중앙고·서울대·외시 13회
통일부	김남식(53·서울)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우신고·서울대·행시 26회
법무부	김학의(57·서울)	대전고검장	경기고·서울대·사시 24회
안전행정부 제1	박찬우(54·충남)	행안부 소청심사위원장	용산고·성균관대·행시 24회
안전행정부 제2	이경옥(55·전북)	행안부 차관보	전주해성고·전북대·행시 25회
문화부 제1	조현재(53·경북)	문화부 기획조정실장	휘문고·연세대·행시 26회
문화부 제2	박종길(67·전북)	태릉선수촌장	이리농림고·광운대
농림축산부	여인홍(56·부산)	농림부 식품산업정책 실장	동래고·서울대·기시 19회
산업부 제1	김재홍(55·대구)	지경부 성장동력실장	중앙고·한양대·행시 26회
산업부 제2	한진현(54·전남)	지경부 무역투자실장	전남고·전남대·행시 25회
보건복지부	이영찬(54·서울)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한영고·경희대·행시 27회
환경부	정연만(52·경남)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진주고·서울대·행시 26회
고용노동부	정현옥(여·56·서울)	근로복지공단 비상임 이사	경기여고·성균관대·행시 28회
여성가족부	이복실(여·52·경기)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창덕여고·서울시립대·행시 28회
국토교통부 제1	박기풍(57·제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경복고·서울대·행시 27회
국토교통부 제2	여형구(54·충남)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대진고·한양대·기시 16회
국무조정실 제1	홍윤식(57·강원)	총리실 국정운영 1실장	용산고·서울대·행시 28회
국무조정실 제2	이호영(55·경남)	총리실 국정운영 2실장	경희고·서울대·행시 29회



노동하는 인간에 바쳐진 숭고한 사랑

김은영의 '그림 생각'

(21) 씨앗

'이상 고온'으로 진군하듯 밀려들던 봄이 요 며칠 꽃샘추위에 움츠러든 품새다. 얼마 전부터 가꾸기 시작한, 시골 텃밭을 때맞춰 일구는 일은 봄이 되자 더욱 분주해진다. 씨앗을 사러 종묘상엘 갔더니 주인은 "요즘은 모종의 시대"라며 씨앗보다 모종을 권한다. 그래도 씨 뿌리고 싶은 마음에 씨앗 몇 봉지 사들고 와 두둑을 높이고 고랑을 판 작은 텃밭에 채소씨앗을 정성껏 뿌렸다.

씨앗은 언제나 경이로움 그 자체다. 그토록 작은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올 때의 그 생명력을 무엇이라 할까. 씨앗이 펼쳐져 나무가 되었다가 그 나무가 다시 합쳐져 씨앗이 되는 원리는 여전히 내게 기적이다. 봄볕과 붉은 황토밭, 바람과 사람이 빚어내는 대자연의 파노라마 역시 내게 더없는 절경이다.

'만종''이삭줍기' 등 대표작을 통해 우리에게 농민화가로 알려진 장 프랑스와 밀레(1814~1875)도 일찍이 '씨 뿌리는 사람'을 그렸다. 프랑스 농촌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파리로 나갔다가 다시 전원인 바르비종으로 돌아온 밀레는 오전에는 농부와 함께 밭을 갈았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렸다. 바르비종으로 돌아와 처음 완성한 농민화가 '씨 뿌리는 사람'이다.

밀레 작 '씨 뿌리는 사람'

여명일까, 황혼일까. 어슴프레한 색채를 배경으로 투박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씨앗들을 흩뿌리면서 언덕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가파르게 기울어진 지평선이 역동감을 더해주면서 일과 함께 자연에 대한 감동을 더해준다. 저 멀리에는 바쁘게 소를 모는 다른 농부의 모습도 어렴풋이 보인다.

밀레의 예술 뿐 아니라 삶까지 존경했던 고흐는 특히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주제에 열중해 같은 제목의 그림을 수십 점 다시 그렸다. 고흐는 밀레의 그림 속에서 겸허하게 노동하는 인간에 바쳐진 숭고한 사랑을 보았던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어지간해야 봐주지. 원…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신림점(신림역 2번 출구):02)86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스필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광내 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이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68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